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강 유 진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Kang, Yoo Jean
Dept. of Child Studie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family income and academic achievement. I use th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al and Employment Panel(KEEP) on the thir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2004.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s of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as well as financial capital such as family income are mo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are served as moderators of the influences of family income on academic achievement. For example, higher parental concern about children and teacher-student bonding provides an extra boost t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student achievement. Furthermore, lower educational expectations can make the relation between income and achievement negative.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as the alternatives to promote academic achievement. In particular, greater concern and support encouraging social capital at home and school should be directed at low-income students who are struggling with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family social capital, school social capital, family income, academic achievement, moderation

I. 문제제기

우리 문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높은 교육열’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

녀 세대는 ‘공부’를 잘 하는 것, 부모세대는 ‘자식에게 최선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자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자리잡아왔다(김의철·박영신 2008). 또한

학교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은 이후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다. 학업성취를 통해 높은 학력 수준을 갖추는 것은, 성인기 좋은 직업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김선숙·고미선 2007; 윤현선 2006; 이봉주·김광혁 2009; 이중섭·이용교 2009). 이처럼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학벌을 갖추는 것 이외에 마땅히 성공을 위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의 사회 풍토에서 ‘학업성취’를 둘러싼 대중적, 학문적 관심이 매우 높다. 더욱이 수시로 변화하는 입시제도, 국제중·특목고 등 엘리트 스쿨의 등장 등 더욱 경쟁적이 되어버린 입시환경으로 인해 과연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

이 시점에서 최근 사회적, 학문적으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학업성취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련성, 즉 교육성취에서의 계층재생산의 문제이다. 점점 더 경쟁적인 교육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생과 부모 등 개인·가족 차원에서 학업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이 치열한 요즈음,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족의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인지 여부를 탐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구인회 2003; 김광혁 2008; 김기현·방하남 2005; 김은정 2007; 윤현선 2006) 가족의 소득, 부모의 직업지위, 사교육비 등 가족의 물질적, 외적인 기반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 결과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가족의 물질적 투입의 역할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학력격차,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이 연구들은 학업성취라는 변수를 단순히 교육의 차원의 것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의미, 즉 세대 간 계층재생산의 연결고리로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제 학업성취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은 부모가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어떤 메카니즘이 가족의 물질적 자원이 자녀세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는지’에 관한 관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다(김경근 2000; 김은정 2006; 이중섭·이용교 2009; Crosnoe 2004; Gutman & Midgley 2000). 이러한 관심은 가족 내 물질적 자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지 그 중간 과정에 주목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가족의 물질적 배경이외에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류의 자원이 있는지 등 보다 폭넓은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유도하였다.

이 시점에서 최근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본’이지만, 개인의 타고난 내적인 능력에 달려있거나 주어진 물질적 기반에 존재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획득하는 자본을 말한다(이재훈·김경근 2007). 다시 말해서, 사회적 자본은 주변의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가는 유대감, 친밀감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족, 학교, 직장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언제든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이경은·주소희 2008; Coleman 1988; Portes 1998).

특히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김경근 2000; 김현주·이병훈 2007; 박혜숙·전명남 2007; 안우환 2003; Coleman 1988; Durlfur et al. 2008; Hoffmann & Durlfur 2008; Parcel & Durlfur 2001a, 2001b; Portes 1998)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성취에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심에 가족 사회적 자본(family social capital)과 학교 사회적 자본(school social capital)이 있다. Coleman(1988)에 의하면,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뢰와 애정을 토대로 만든 ‘관계’가 형성되는데, 바로 이것이 가족 사회적 자본으로 창출이 되어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사회적 자본 역시 중요하다.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교사와 맺는 신뢰감, 교사와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업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동기부여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력신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이경은·주소희 2008; 이재훈·김경근 2007; 이봉주·김광혁 2009; Durlfurf et al. 2008; Ma & Klinger 2000; Parcel & Durlfurf 2001a) 부모 자녀간의 유대감, 의사소통, 관심 등 가족 내 정서적 관계, 학교에서 맺는 학생 교사간의 유대감 등 가족과 학교 내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시켰다. 결국, 가족배경이외에 청소년의 교육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며 사회적 자본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한편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성취 간의 관련성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사회적 자본들의 개별적 영향력을 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족배경과 사회적 자본들이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여러 차원의 자본들의 상호 복합적 다이내믹을 살핌으로써 교육계층화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살피는 경향이다. 예를 들면, 가족배경과 사회적 자본과의 상호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매개효과를 활용한 것이다. 특히 국내의 많은 연구들은(김광혁·차유림 2007; 김선숙·고미선 2007; 김영희 2002; 김현주·이병훈 2007; 이재훈·김경근 2007; 이주리 2010; 이중섭·이용교 2009) 주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가족의 물질적 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규명해 왔다. 이 연구들은 가족의 물질적 환경의 우월성이 아무런 노력 없이 청소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감, 상호작용, 교감의 형성 등 사회적 자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다른 연구방법은 조절효과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위의 매개효과 분석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적 과정에 작용하는 매개요인의 개입

경로를 규명하려는 것이라면, 조절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계성의 강도 혹은 관계성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들의 역할을 밝히는 것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Muller et al. 2005). 그런데 아직까지 조절효과를 이용하여 가족소득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다만 조절모형에 토대를 둔 서구의 연구들의 경우(Crosnoe 2004; Gutman & Midgley 2000; Hoffmann & Durlfurf 2008; Parcel & Durlfurf 2001a, 2001b) 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들의 상호 관련성을 탐색해 왔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들끼리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이 ‘언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매개모형과 조절모형 모두 학업성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분석의 초점을 더 이상 가족의 ‘물질적’, 혹은 ‘인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두고,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으로써 가족 소득이라는 물질적 기반을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학생을 둘러싼 가족 내외의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다면,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분석의 초점을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조절하며, 그 조절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둘 것이다. 이제까지 가족 배경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 비해, 이들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반면, 본 연구는 조절모형에 주목하여 가족 소득의 효과가 어떠한 사회적 자본의 조건에서 더욱 강화되는지, 혹은 더 약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중학교 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으로 인한 교육계층화

가 고등학교 진학 단계, 즉 중학교 3학년에서 일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김경근·변수용 2006)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단계에 이르면 청소년들은 학문적으로도 더욱 경쟁적이면서 질적으로 어려워진 새로운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는데, 이러한 환경은 특히 열악한 가족환경의 학생들에게 더욱 무기력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Gutman & Midgley 2000). 게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양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며, 더 어려워진 학업활동으로 인해 가족이 물질적이고 인지적 투입에 매달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의 자료가 가족의 소득과 학업 성취의 관련성 및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보여주는데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소득 및 가족·학교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가족·학교 사회적 자본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물질적 기반이 학업성취에 연결되어 계층이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겁다. 본 연구는 사실상 가족의 소득에 대한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 소득 효과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자본을 말한다(Coleman 1988).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는 ‘재정적 자본(financial capital)’, 혹은 학력수준으로 대표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달리, 어떤 실체가 없이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재하지만, 다른 형태의 자본들과 마찬가지로

로 개인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이재훈·김경근 2007; Hagan et al. 1996).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흘러가는 자원의 흐름이다. Coleman은(1988) 정보(information), 규범(norms), 정서적 지원(support) 등 개인의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들이 바로 사회적 유대감(social ties)을 통해 개인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개인의 발달에 유용하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였다(Crosnoe 2004).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둘러싼 영향요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관심의 중심축을 물질적, 외적 자원이 아닌, 정서적 관계의 질로 옮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 속한 환경, 사회적 집단 속에서의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때 이것의 형태는 개인이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고 어떠한 환경에 둘러싸여 이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다양하며, 양적으로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보다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갖는다.

최근 많은 국내외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이 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회적 자본의 형태가 바로 가족 사회적 자본(family social capital)이다. 가족은 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원천이다(Furstenberg & Hughes 1993). 구체적으로 가족 사회적 자본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의 활동을 모니터 하며, 교육적 성취를 포함한 자녀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쏟는 시간과 관심이라고 정의되어 왔다(Parcel & Durlfur 2001a). 즉,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업 측면에서의 적응과 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물질적·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며, 학교환경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성취란 무엇인지에 관한 규범을 강화시킨다(Carbonaro 1998).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 붓는 노력

과 자원이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간 강력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Crosnoe 2004).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가진 물질적·인적 자원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지만,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자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 내 충분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지만 이것을 매개로하여 부모가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부모세대가 갖춘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투영될 수 있다(김은정 2006).

한편, 사회적 자본과 자녀의 교육적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ダイナ믹을 창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 자녀와 따뜻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가족 내 존재하는 성인과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지’ 등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자녀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 내 자녀와 따뜻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로 양친가족 여부, 즉 가족구조로써 측정하였다. Coleman(1988)은 양친가족의 자녀들은 부모 간에 형성된 안정된 유대감, 더 많은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보다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Mclanahan & Sandefur 1994; McLoy 1998; Portes 1998)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학업성취, 비행 등 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양친가족의 자녀들보다 더 많은 부정적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은 ‘가족 내 존재하는 성인과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지’, 즉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김경근 2000; 김선숙·고미선 2007; 김은정 2006; 김현주·이병훈 2007; 신원영·강현아 2008; 안우환 2003; 이경은·주소희 2008; 이봉주 등 2010; 이재훈·김경근 2007; Gutman & Midgley 2000; Lee & Bowen 2006; Ma & Klinger 2000; Parcel & Dufur 2001a, 2001b; Teachman et al. 1996)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 얼마나 친밀한지, 특히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적 관여와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지 등 여부가 학업성취와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가족과 대화시간 및 관심정도(김현주·이병훈 2007),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안우환 2003), 부모자녀의사소통 개방성, 자녀와 대화시간(이봉주 등 2010), 부모의 학업관련 대화 및 일상생활 관심 정도, 자녀생활에 대한 통제여부, 교육기대수준(김은정 2006) 등을 가족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가족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족 내 양친의 존재 유무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설정하였다. 이 때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부모의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수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가족 소득의 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

가족 이외에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바로 ‘학교’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생활 및 학업활동에 쏟으며 보내며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를 잘 하고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가늠하고 성취하기 위한 장이다(양국선·장선숙 2001).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는 가족 못지않게 교육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핵심적 환경임이 분명하다.

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족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 비해 학교 사회적 자본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학교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이 학교를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 즉 학력을 신장시키고 배양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

한 나머지, 학교가 학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Crosnoe 2004).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이내믹이 비단 학습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사와 친구들 간의 유대감, 친밀감,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사회화를 포함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 내에서 교육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창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업활동을 하는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환경 속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학생들의 삶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사회적 자본이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환경, 특히 그 속의 성인들과 아동·청소년들의 상호작용, 혹은 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는 성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때(김경근 2000), 국내외 선행연구들은(김현주·이병훈 2007; 이재훈·김경근 2007; Crosnoe 2004; Crosnoe & Elder Jr. 2004; Parcel & Durlfur 2001a, 2001b) 학교 사회적 자본을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측정해 왔다. 첫째,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는 학교 환경인지의 여부, 예를 들면 카톨릭 사립학교인지 혹은 공립학교인지 등 학교특성, 둘째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모와 학교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원활한가의 여부, 예를 들면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혹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셋째로는 아이들이 교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의 여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서구 연구들은 학교사회자본으로 주로 학교 특성 요인과 부모와 학교와의 상호작용 요인을 활용한 반면, 국내 연구들은(김은정 2007; 신원영·강현아 2008; 이경은·주소희 2008; 이재훈·김경근 2007; 이중섭·이용교 2009) 대부분이 교사와 학생, 혹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학교 사회적 자본으로써 측정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선행연구들은(이숙정 2006; Birch & Ladd 1997; Skinner & Belmont 1993) 또래 관계 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봉주와 김광혁(2009)은 학교 사회적 자본으로서 학교생활만족도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만족스런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학교생활만족도가 학교에 대한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학업활동에 대한 관심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의 학업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여 학력신장이라는 교육적 성과를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학교 사회적 자본을 학생과 교사와의 친밀감, 학교생활만족도 등 두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중재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가족 소득에 대한 가족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영역의 자본들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한다. 특히 Coleman(1988)은 부모가 아무리 거대한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부분, 즉 유의미한 타자가 될 만큼 자녀와 부모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소유한 외적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투입한 많은 물질적 자원들이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를 설명할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결합하여 이 둘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혹은 조절효과 검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윤현선 2006; 이재훈·김경근 2007; 이주리 2010; 이중섭·이용교 2009; 주동범 1998) 주로 매개효

과 검증은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 혹은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게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외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중간 매개 과정을 거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매개모형이 영향요인들의 효과가 ‘왜’, ‘어떠한 경로’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조절모형은 그 효과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혹은 ‘언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이상균 2008). 즉, 조절효과는 X와 Y변수 간의 관련성의 강도 혹은 그 방향이 제 3의 변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검증한다(Morgan-Lopez & MacKinnon 2006; Muller et al. 2005). 몇몇 서구의 연구들은 (Crosnoe 2004; Gutman & Midgley 2000; Hoffmann & Durlfur 2008; Parcel & Durlfur 2001a, 2001b) 조절모형을 활용하여 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가족과 학교의 사회적 자본들 간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바 있다. 가족과 학교는 청소년을 둘러싼 매우 중요한 생활환경임을 감안한다면, 가족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청소년 발달, 특히 교육적 성취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Crosnoe 2004; Parcel & Durlfur 2001a, 2001b). 그 결과,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은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의 발달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 학교 사회적 자본이 이 점을 보완하면서 교육적 성취를 이끌거나, 가족과 학교의 사회적 자본이 모두 높으면 더욱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는 등 다양한 증재방식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취와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rosnoe 2004; Gutman & Midgley 2000; Hoffmann & Durlfur 2008; Parcel & Durlfur 2001a, 2001b).

본 연구는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는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제까지 연구들을 보면, 가족 소득과 기타 사회적 자본 각각의 개별적 영향력 분석을 통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거나, 매개모형을 통해 가족 배경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치중한 경향이다. 그런데 가족 소득과 교육적 성취가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소득이 높은 모든 집단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가족 소득의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소득의 조절 요인으로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절모형을 토대로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조사대상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al and Employment Panel)의 2004년 1차년도 중학교 3학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이면서 중학교 3학년들의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게 추출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6,000명과 이들의 학부모, 담임교사 및 학교행정가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조사를 계획한 종단자료이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로 관련 정보, 가족과 학교생활 관련 정보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며, 2004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연 1회 추적 조사를 통해 꾸준히 수집되고 있는 전국적 범위의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1차 패널자료 중 중학생 자료와 이들의 가구 정보, 그리고 담임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남학생이 996명(49.8%), 여학생이 1,004명(50.2%)이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94명(5.1%), 중학교 졸업이 205명(11.1%), 고등학교 졸업이 945명(51.4%), 2-3년제 대학 졸업이 113명(6.1%), 4년제 대학 졸업이 413명(22.4%), 대학원 이상 학력이 70명(3.8%)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아버지의 과반수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123명(6.5%), 중학교 졸업이 309명(16.3%), 고등학교 졸업이 1141명(60.3%), 2-3년제 대학 졸업이 66명(3.5%), 4년제 대학 졸업이 217명(11.5%), 대학원 이상이 35명(1.9%)이었다. 가족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이하가 721명(37%), 200만원-300만원이 585명(30%), 300만원-400만원이 312명(16%), 400만원 이상이 333명(17.1%)이며,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98만원이었다.

2. 변수의 측정 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이며, 이것은 담임선생님이 응답한 학생의 전교 석차 비율을 '101-석차백분위 비율'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통제변수인 성별, 가족 소득, 가족의 사회적 자본 요인, 그리고 학교의 사회적 자본 요인이다. 첫째, 가족 소득은 월 평균가족소득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소득 분포의 심한 편차를 고려하여 분석에 투입할 때는 로그화한 값을 이용하였다.

둘째, 가족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는 질문지 문항들 중 크게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적·애정적 관심이 높은가'와 '가족 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존재하는가'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가족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 부모의 학생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부모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양친여부의 네 가지 변수를 선택하였다. 이 중 부모관심요인이란 질문지 문항 중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포괄적 관심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써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자녀의 성적, 친구, 친구의 부모, 학교생활, 생활습관, 개인적 고민 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묻은 것이다. 부모관심 요인의 신뢰도는 .745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란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를 묻은 것인데 4년제 대졸 이상을 1, 그 이하를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부모에게 얼마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양친여부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양친이 모두 존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셋째, 학교의 사회적 자본은 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과 학교만족도 등 두 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교사와 학생 간 친밀감은 학생이 학교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선생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파악하였다. 이 문항들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보이는 선생님이 있는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지,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는지 여부를 '예' 혹은 '아니오'로 묻는 문항들로써 '예'를 응답한 항목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교사친밀감 요인은 0에서 4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 친밀감 요인의 신뢰도는 .668이다. 다음으로 학교만족도는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수업시간이 재밌는지를 묻는 문항, 전학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묻는 문항, 공부할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등 전반적으로 학교 분위기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학교 내 학업활동을 위한 분위기가 얼마나 잘 조성이 되어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학교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622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일 경우 1점, 여학생일 경우 0점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3. 분석 방법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고 이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빈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가족 소득의 효과를 중재하는 조절변인을 조절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독립변수들

의 직접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소득 및 가족·학교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 경향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빈도와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다음의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가족소득은 로그화한 값을 취했을 때 최소값이 3, 최대값이 8의 범위 중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은 5.55정도이었다. 가족사회적 자본으로서 조사대상자들의 부모관심과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정도의 평균은 각각 3.57과 .3.63으로서 5점 리커트 척도 중 ‘보통이다’와 ‘그렇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은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대학교이상의 교육을 기대하였으며, 양친부모 여부 역시 조사대상자 대다수인 88.4%가 부모가 모두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 사회적 자본으로서 교사친밀감 수준은 0에서 4의 범위 중 2.58이었으며 학교만족도의 평균은 3.38이었다.

2.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소득 및 가족·학교 사회적 자본의 영향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 소득 및 가족·학교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영향력을 살핀 후, 가족 소득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중재과정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회귀분석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듯이 종속변수인 성적에 대하여 가족소득, 가족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5이하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용된 독립변수들을 모두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한편,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이(Agnew et al. 2002; Aiken & West 1991) 제안한 대로 각 변수들을 표준화한 후, 표준화된 가족 소득과 조절요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	Frequency(%)	Mean(min.-max.)	SD
Academic achievement		52.25 (1.00-100.80)	27.92
Family income*		5.55(3.00-8.01)	.59
Parental concern about children		3.57(1-5)	.57
Parental educational expectation	over college under college	1,747(89.5) 204(10.2)	
Parental concern about educational policy		3.63(1-5)	.98
Intact family	two-parent family others	1,767(88.4) 233(11.7)	
Student-teacher bonding		2.58(0-4)	1.33
School satisfaction		3.38(1.25-5.00)	.57

* The log of family income is used.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073**	1							
3	.239**	.070**	1						
4	.236**	-.078**	.227**	1					
5	.271**	.007	.246**	.166**	1				
6	.221**	.006	.245**	.302**	.184**	1			
7	.178**	.050*	.420**	.174**	.171**	.147**	1		
8	.093**	.008.	-.017	.093**	.037	.059**	-.007	1	
9	.100**	.140**	.043	.071**	.087**	.061**	.046*	.295**	1

*p<.005, **<p.01

1. academic achievement, 2. gender, 3. family income 4. parental concern about children 5. parental educational expectation 6. parental concern about educational policy 7. intact family 8. student-teacher bonding 9. school satisfaction

인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1) 가족 소득 및 가족·학교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영향력

먼저, 조사대상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 소득 및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개별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소득, 가족 사회적 자본, 학교 사회적 자본 등 관련 독립변수들을 차례로 투입함으로써(모델 1, 모델 2, 모델 3)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Table 3. Effects of family capital, school capital, and family income on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	model 1(β)	model 2(β)	model 3(β)	model 4(β)		
Gender	-.099***	-.086***	.095***	-.095***	-.094***	-.095***
Family income	.243***	.109***	.111***	.115***	-.034	.108***
Concern about children(A)		.126***	.117***	.123***	.117***	.117***
Educational expectation(B)		.193***	.189***	.192***	.220***	.188***
Concern about educational policy		.109***	.106***	.104***	.105***	.106***
Intact family		.066**	.064**	.072**	.070**	.065**
Student-teacher bonding(C)			.056*	.055*	.054*	.055*
School satisfaction			*.055*	.054*	.053*	.055*
Family income×A				.061**		
Family income×B					.147*	
Family income×C						.045*
R ²	.066***	.151***	.159***	.162***	.161***	.161***
△R ²	.066***	.085***	.008***	.003**	.002*	.002*

*p<.05 **p<.01 ***p<.001

Gender: male=1, female=0

Intact family: two-parent family=1, single-parent family or others=0

Parental educational expectation: over college=1, under college=0

분석 결과,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 즉 가족소득, 가족 내 사회적 자본(부모관심, 기대학력, 교육정책 관심, 양친존재여부), 그리고 학교 내 사회적 자본(교사친밀감, 학교만족도)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각 분석 모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들 독립변수들이 성적에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김선숙·고미선 2007; 이봉주·김광혁 2009; 김경근 2000; 안우환 2003; 윤현선 2006; Crosnoe 2004) 모두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가족의 소득과 사회적 자본들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다 할지라도(모델 3) 이들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가족소득과 가족·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여전히 독립적이고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가족 소득 못지않게 가족내외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좌우하는데 개별적으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크기로써 이들 변수가 성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기대학력 요인이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부모관심 요인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가족의 소득 혹은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요인 보다 더 강하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적 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물질적 배경에 비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경향이 있으나(안우환 2003), 본 연구 결과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열정, 즉 가족 내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이 가족의 물질적 배경보다 더욱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2) 가족 소득 중재과정: 가족 사회적 자본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가족 및 학교 사회적 자본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위의 Table 3의 모델 4처럼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변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즉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이상균 2008; Aiken & West 1991) 의하면, 상호작용항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통제변인과 예측변인, 조절변인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 실시이후, 상호작용항 투입단계에서 F검증을 통해 R²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항의 투입이후 회귀식의 R²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부모관심, 기대학력, 교사친밀감 요인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변수들은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인들이었다.

그렇다면 가족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이(이상균 2008; 정연옥·이민규 2006; Agnew et al. 2002) 제안한 대로, 조절변인의 특정한 조건값에서 예측변인이 갖는 단순기울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들은 회귀분석을 이용한 상호작용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사용하여 보다 간편한 계산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y = \beta_1 X + \beta_2 XZ$, 즉 $y = (\beta_1 + \beta_2 Z)X$ 이다. 이때, β_1 =예언변인인 X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_2 =상호작용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Z는 중재변인이며, 바로 $(\beta_1 + \beta_2 Z)$ 가 예언변인의 단순기울기를 말한다. 단순기울기 $(\beta_1 + \beta_2 Z)$ 의 크기는 Z값, 즉 조절변인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바로 이러한 단순기울기의 변화를 통해 조절변인이 어떠한 조건

하에 상호작용효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단순기울기를 토대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부모관심, 기대학력, 교사친밀감 요인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가족 소득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관심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 제안한 단순기울기를 가족소득과 부모관심수준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적용하였다. 먼저, 부모관심 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족소득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단순기울기로 표현하면, 학업성적 = $.115 + .061 \times (\text{부모관심})$ 이다. 가족 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부모관심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평균보다 1SD 높은 수준과 1SD 낮은 수준으로 임의적으로 나누어 이 값을 계산식에 대입해 보았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부모관심이 높은 집단의 경우(+1SD) 가족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176이며, 부모관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1SD) 가족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054로 나타났다. 즉, 부모관심 수준에 따라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의 Fig. 1을 보면, 가족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적 역시 높아지는 정적 관련을 맺고 있지만,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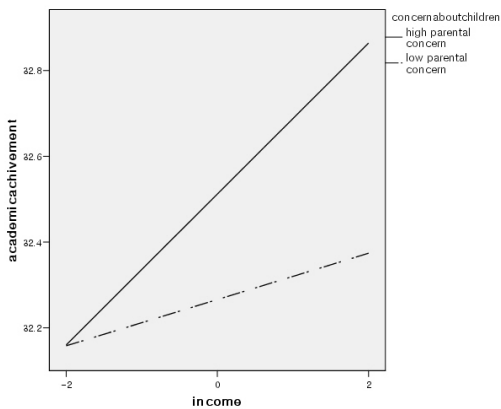


Fig. 1. Interaction of family income and parental concern about children with respect to academic achievement

심의 높고 낮음에 의해 그 크기가 조절됨을 알 수 있다. 부모관심 정도가 높은 집단은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부모관심 정도가 낮은 집단은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가족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 다르게 표현한다면 같은 소득수준일 때 학업성취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모관심 수준을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가족 소득의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의 변화에 따라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단순기울기를 구하면, $-.034 + .147 \times (\text{기대학력})$ 이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1= 4년제 대졸 이상) 소득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113이며, 교육기대수준이 낮은 집단에서(0= 4년제 대졸 미만) 가족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034이다. 흥미롭게도 이 결과는 Fig. 2에서 보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 요인의 높고 낮음에 의해 가족 소득과 학업성취간의 관련성의 방향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즉, 기대학력수준과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기 전에는(모델 3) 가족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적 역시 향상되었지만, 상호작용항이 투입될 경우(모델 4)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면서 기대학력의 수준에 따라 가족 소득과 성적의 관련성이 부적 관계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이 증가하면 성적도 향상된다는 소득과 성적 간의 긍정적 관련성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한정되며, 교육기대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소득이 높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학업성취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자녀의 학업 성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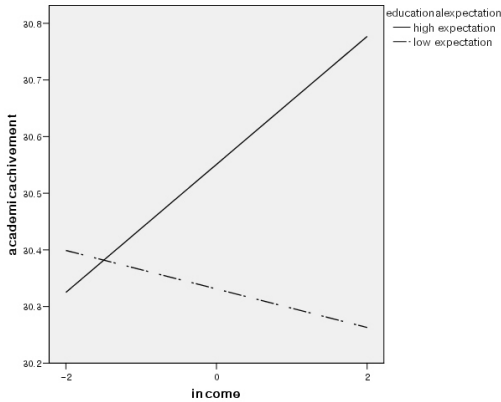


Fig. 2. Interaction of family income and parental educational expectation with respect to academic achievement

셋째, 학교 사회적 자본 중 교사와의 애착이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절효과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기울기로서 계산식을 세워보면, $.108 + .045 \times (\text{교사애착})$ 이다. 교사와 애착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1SD)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153이며, 교사애착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1SD)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063이 된다. 이것은 교사애착 요인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가족소득과 성적 간의 긍정적 관련성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교사애착 요인의 높고 낮음에 의해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변화함을 나타낸다. Fig. 3에서 보듯이, 교사애착 수준이 높다면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반면, 교사애착 수준이 낮다면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좀 더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같은 가족소득일 때 교사애착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취를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 소득이 낮고 교사애착 수준이 낮은 집단이 학업성취를 위한 매우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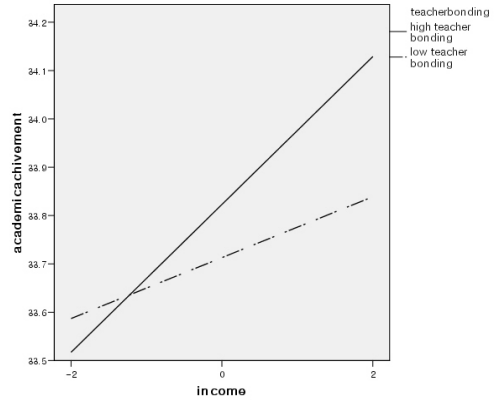


Fig. 3. Interaction of family income and student-teacher bonding with respect to academic achievement

정리하면, 본 연구 결과는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이 가족 소득보다 더 강력하게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특히 가족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다. 즉,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소득의 영향을 더 크게 만들거나, 더 작게 만드는 중재요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자녀의 학업활동을 촉진하여 학업성취를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물질적 환경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자녀가 속한 환경 속에서 주변인들의 신뢰감과 애정, 교육적 기대와 관심을 통한 따뜻한 인간적 상호작용을 창출해내는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학업성취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가족 소득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가족 내외의 사회적 자본의 창출이 학업성취에 더욱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작용하는 가족 소득과 가족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족 소득과 사회적 자본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여, 조절모형을 토대로 가족 소득의 영향을 사회적 자본들이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절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제한점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소득, 가족 내 사회적 자본,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요인들 모두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소득, 가족 내 사회적 자본, 학교 내 사회적 자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요인들이 개별적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또한 투입된 요인들 중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그 중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에 대한 부담과 공부 압력이 증가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청소년기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교육적 기대와 관심은 자녀에게 투입하는 물질적 자원 못지않게 학업성취와 관련된 중요한 자원임을 확인시키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지를 가족소득과 사회적 자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족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많고 적음에 의해 조절됨이 밝혀졌다. 즉,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증가하지만 소득의 영향력이 모든 집단에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관심과 교사에착이 높은 집단은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긍정

적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부모관심과 교사에착이 낮다면 같은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바로 가족 소득과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 간의 상호작용이다. 부모관심과 교사에착의 경우와 달리, 이러한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은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뿐 아니라 방향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 소득의 성적에 대한 효과를 부모의 교육기대수준 요인과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아지는 관계는 부모의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집단, 즉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을 희망하는 집단에 국한되었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학력 수준이 낮은 집단, 즉 자녀의 기대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 미만을 기대하는 집단의 경우, 소득과 성적은 오히려 부적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이 낮다면 가족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성적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적 기대수준을 갖지 않는다면, 가족의 물질적 자원의 투입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4년도 제 1차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으며, 중학교 3학년 자료를 포함하며, 사회적 자본 관련 문항이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맞추다 보니 분석 시점에 비해 자료가 다소 오래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들을 대표하는 문항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제한된 문항들 내에서 가능한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

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족 소득과 교육적 성취와의 관련성, 그리고 이로 인한 교육계층화의 논의가 뜨거운 시점에 과연 소득과 학업성취라는 연결고리를 중재할 수 있는 대안적 자원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을 찾아내었다. 개인을 둘러싼 유의미한 환경과 친밀하고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한다면 ‘물질적’ 혹은 ‘인적 자본’ 못지않은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며, 연구 결과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고 교육적인 기대감을 표출하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교사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느냐의 여부는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뿐 아니라,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가족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풍부한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통해 학업성취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점, 반대로 가족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의 결핍은 학업성취의 하락을 이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것은 비록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지라도 그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현실적으로 개별 가족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대안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더욱 유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교육 등 학업활동에 대한 물질적 투입 이외에 가족과 환경 안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중요한 생활환경 속에서 맺는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소득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의 창출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취약한 소득 집단의 학생들에 대하여 가족과 학교에서 더욱 따뜻한 관심과 교육적 격려를 보이고, 애정 어린 상호작용을 통해 학업활동을 촉진하는 다이나믹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집단에 대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김경근·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선택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김광혁(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115-138.

김광혁·차유립(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투자)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9-51.

김기현·방하남(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격차. 한국사회학 39(5), 119-151.

김선숙·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김영희(2002)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적 요인인가 또는 가족구조인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57-365.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33-61.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134-162.

김의철·박영신(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63-109.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적 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9(1), 125-148.

박혜숙·전명남(2007)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

- 본 중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생, 교사 및 학교특성의 예측력. 교육심리연구 21(1), 145-168.
- 신원영·강현아(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안우환(2003)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30(3), 161-184.
- 양국선·장선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과년된 보호요인 특성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13(3), 127-148.
- 윤현선(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의 비교 검증. 청소년학연구 13(3), 107-135.
- 이경은·주소희(2008) 가족내외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2), 113-131.
- 이봉주·김광혁(2009)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4), 287-306.
- 이봉주·김선숙·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상균(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121-151.
- 이숙정(2006) 중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동료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재훈·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적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175-208.
- 이주리(2010) 가족자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태도와 사교육의 매개효과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137-146.
- 이중섭·이용교(2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28(8), 159-192.
- 정연옥·이민규(2006) 이혼가정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89-708.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 Agnew R, Brezina T, Cullen JPWF(2002) Strain, personality traits, and delinquency: extending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40(1), 43-71.
- Aiken LS, West S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Sage.
- Birch S, Ladd G(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Carbonaro WJ(1998)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parents: intergenerational closure and educational outcomes. Sociology of Education 71, 295-313.
- Coleman J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0.
- Crosnoe R(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2), 267-280.
- Crosnoe R, Elder Jr. GH(2004)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5, 571-602.
- Durfur MJ, Parcel TL, Mckune BA(2008) Capital and context: using social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to predict chil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9(2), 146-161.
- Furstenberg F, Hughes ME(1993)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80-592.
- Gutman LM, Midgley C(2000)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suppor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oor African American student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23-248.
- Hagan J, MacMillan R, Wheaton B(1996) New kid in town: social capital and the life course effects of family migration on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368-385.
- Hoffmann JP, Durfur MJ(2008) Family and school capital effects on delinquency: substitutes or complements? Sociological perspectives 51(1), 29-62.
- Lee JS, Bowen NK(2006) Parental involvement, cultural capital, and the achievement ga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3(2), 193-218.
- Ma X, Klinger DA(2000) Hierarchical lineal modelling of student and school effects on academic achievement.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5(1), 41-55.
- McLanahan S, Sandefur GD(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oy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organ-Lopez AA, MacKinnon DP(2006) Demonstration and evaluation of a method for assessing mediated moderation. Behavior Research Methods 38(1), 77-87.
- Muller D, Judd CM, Yzerbyt VY(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 Parcel TL, Durfur MJ(2001a) Capital at home and at school: effects on chil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32-47.
- Parcel TL, Durfur MJ(2001b) Capital at home and at

- school: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Social Forces* 79(3), 881-911.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 Rev. Social.* 24, 1-24.
- Skinner EA, Belmont MJ(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Teachman JD, Paasch K, Carver K(1996) Social capital and dropping out of school ea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773-783.